

삼풍백화점 참사현장 인간승리의 드라마

“기다리면 구해주겠지” 어머니님 생각 뿐

7월 11일 오후 3시 29분. 매물 285시간만에 지하 1층에서 유지환 양이 살아났을 때 얼마 정광일 보살(48세)은 꿈안같았다.

지난 4월초파일 화계사에 등불을 밝히며 남편의 회복과 아들 세 딸이와 딸 지환이를 위해 기도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부처님 감시합니다' 남편이 입원한 뒤로 평소 다니던 화계사도 거의 가보지 못했지만 늘 마음으로 부처님께

유지환 양

오지하던 그였다. 4년째 뇌졸중으로 입원중인 남편 간호에 늘 바쁜 정보살이었고, 그런 집안살림에 보탬이 되려 일찌감치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환이었다.

'내 딸은 살아있다' 확산

사고가 나던 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딸이 다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정보살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장에 도착했지만 딸의 모습은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다. 막막했다. '아니야 어딘가에 꼭 살아 있을거야' 마음 속으로 딸의 생



◇ 죽음의 문턱에서 9일 극적으로 구출된 최명석군과, 이를 뒤인 11일

'새로 태어난 두 생명'

생환한 유지환양은 병상에 나란히 누워 손을 맞잡았다.

순(72세)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 그래서 이번 사고에도 온가족이 일심으로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구조현장으로 달려가 열정적인 구조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다. 손자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금릉사 부처님께 손자가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구조현장에 나선 가족들을 지원하기

최명석군

도 했다. 이런 가족의 정성을 부처님이 감응하시기도 한 듯,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발생 11일째를 맞은 지난 9일 정아비로 흥건하게 잤은 일요일 아침, 최명석씨 가족들에게 무지개빛 소식이 전해졌다.

금릉사 부처님께 기도

2시간여의 구조작업 끝에 상처하나 없는 명석이의 상반신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족도 구조대도 나머지 실종자가족들도 숨을 죽인 듯. 실로 감격적인 기적의 순간이었다.

어머니 법당찾아 무사생환 간절히 기도 '285시간 지옥' 믿음으로 극복한 신세대

문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며 사고 당일부터 지난 11일 오후까지 삼풍백화점 현장과 서울교육대학 실종자 대책본부에 마련된 불교지원봉사연합회의 법당을 오가던 모정이었다.

막내딸은 유근배씨를 비롯 고모와 4명의 이모가 교대로 현장에서 실종된 지환양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딸의 실종소식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채 매일 정보살은 저녁 때까지 딸을 찾아 이곳 저곳을 헤매었고, 저녁이면 병식의 남편 곁으로 들어가 아무 일도 없는 듯 남편을 대했다.

그렇게 열흘가 지나고 최명석이라는 청년이 구조되는 날씨가 날아들었다. 지환이가 근무하는 지하 1층에서 구조됐다는 소리에 '우리 지환이도 꼭 살아있을거야'라며 다시한번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끌어세우며 말했다.

그런 확산속에 드디어 11일 2시가 가까운 시간, 그날도 딸을 찾기 위해 교육대학 체육관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 있던 정보살은 누

군가 지하에 살아있다는 뉴스를 들었다.

꿈이어 이름이 확인됐다. '유지환!' 정보살은 꿈장 현장으로 달려갔다. 마음은 이미 지하에서 나오려 발버둥치는 딸에게로 쏠릴가 있었고 울기는 발걸음 걸음마다 지난 13일간의 초조함과 절망감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매물 285시간만에 극적으로 딸 지환이가 지상으로 나왔다. 힐끗 압축속에서도 '기다리면 구해주겠지' 하며 어머니 생각만 했다는 지환양과 딸의 죽음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정보살. 관세음보살을 호명하며 지하에 있는 딸

무언의 힘 '관세음보살'

에게 보낸 모정풀심이 딸이 최후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무언의 힘이 되었던 것이다.

처음 생존소식을 들던 순간부터 구조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환호와 박수, 화계사 부처님의 인자하신 모습... 모든 것들이 지난 기억으로 재

지리를 찾아가고 그제 딸 지환이가 살아있는 기쁨만이 엄마 정광일보살의 눈앞을 적시고 있었다.

"힘드시죠, 음료수라도 갖다드릴까요? 필요한 장비는 없으세요?"



“인연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온 아들·딸을 둔 두 어머니는 기쁨을 나누며 서로 껴안았다. 사진 왼쪽부터 유양의 어머니 정광일씨, 최군의 어머니 전인자씨.

가족 20명 구조현장서 헌신적 봉사 활동 "실종자에 미안...평범한 젊은이로 살고파"

구출됨을 축하하며 지난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실종된 아들 최명석군이 꼭 살아있을거라 믿으며 아버지 최봉열씨, 어머니 장인자씨, 작은 아버지 최봉용씨 등 20여명의 가족과 친지가 사고 현장에서 분주하게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었다.

어려운 이웃 외면 못해

대부분의 실종자 가족들이 사고의 충격으로 오열하며 자신조차 추스리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에서 구조현장을 누비며 구조대원들과 함께 큰크리트 더미를 헤치기도 했던 아버지 최봉열씨(51세)와 작은아버지 최봉용씨(48세)는 한순간도 아들이 살아있을 거란 믿음을 잃지 않았다. 시체가 발굴돼 실려나갈 때면 처참한 마음에 '음 미안미안'을 외우기도 하면서 서로를 격려했다. 대대로 불자집안인 최명석군의 가족은 어려서부터 정의심이 강하고 어려운 이들을 보면 지나치지 않은 할아버지 최이남씨(79세)와 할머니 최점

최군의 아버지는 구조현장과 병원에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주는 이웃들의 성원을 받으며 '우리과 함께 기뻐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나와 내가 하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이웃들 또한 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는 건강하게 살아 부모의 품으로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소신껏 있는 그대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큰 보시라는 사실을 명석군의 가족은 다시금 깨달았다.

지난 11일 285시간만에 구조된 유지환양의 어머니를 증원자살 앞에서 만난 최명석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자식만 살아와 송구스럽고 부담스러웠는데 유지환 양이 살아 나와 한집 났었다. 정말 축하한다'면서 '우리 명석이가 살아났을 땐 꿈만 같았는데 오늘을 정말 날아갈 것 같다'고 말하며 미소지었다.

이은자 기자

◆ He who did not go too fast forward, nor was left behind, being free from hatred, seeing that all this is false,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앞으로 너무 빨리 가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아 마음에서 자유로워진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 He who did not go too fast forward, nor was left behind, being free from folly, seeing that all this is false,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앞으로 너무 빨리 가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아 어려움에서 자유로워진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은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 He to whom there are no affections whatsoever, whose sins are extirpated from the root,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어떤 애착도 없이 괴를 뿌리듯 끊어버린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 He to whom there are no sins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피탄 ③

whatsoever originating in fear, which are the causes of coming back to this shore,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이 세상으로 돌아올 원인이 되는 두려움에서 생기는 어떤 번뇌도 없는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 He to whom there are no sins whatsoever originating in desire, which are the causes of binding men to existence,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사람을 생존에 묶는 원인이 되는 욕망에서 생기는 어떤 번뇌도 없는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 He who, having left the five obstacles, is free from suffering, has overcome doubt, and is without pain,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다섯가지 장애를 떠나 고통에서 자유롭고 의심을 극복하였으며 고뇌가 없는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한영무 기자

◇ '주부신행담' ·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입니다.

21세기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길, 두산이 인재의 세계화로 열고 있습니다

“지금, 배낭여행중입니다”

두산의 사원 500명이 「해외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인재 세계화의 새로운 길, 국내 최초의 사원 배낭여행으로 엽니다

세계화된 기업만이 21세기 초일류 기업- 두산은 인재의 세계화를 통해서 기업 세계화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창의적으로 파악하도록 업계 최초로 실시하는 사원 배낭여행은 인재 세계화의 한 과정입니다. 국내외 장기 어학연수, 전문기관 위탁교육, 해외지점의 현지인 운영체제,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세계화의 길은 과감한 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전통 100년, 도전 100년

두산

인재로 이어온 100년, 일류로 나아간 100년

“지금, 배낭여행중입니다”

두산의 사원 500명이 「해외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인재 세계화의 새로운 길, 국내 최초의 사원 배낭여행으로 엽니다

세계화된 기업만이 21세기 초일류 기업- 두산은 인재의 세계화를 통해서 기업 세계화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창의적으로 파악하도록 업계 최초로 실시하는 사원 배낭여행은 인재 세계화의 한 과정입니다. 국내외 장기 어학연수, 전문기관 위탁교육, 해외지점의 현지인 운영체제,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세계화의 길은 과감한 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전통 100년, 도전 100년

두산